



가정과 행복

박인옥/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엄**마, 엄마는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
 “아버지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중3인 딸아이가 요즘 들어 부쩍 엄마편을 들며 속삭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나누어 하자고 약속한 일들은 껍을 부리거나 슬그머니 눈치보며 적당히 해치우곤 남동생과 똑같은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철든(?) 여학생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이제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 분담이 사회적으로 당위성을 갖게되는 시대임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많은 일들을 요구받고 있고 때로는 강요되어 부부간, 고부간의 갈등에서 사회적 불이익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불평등 관계에 대한 현실과 이의 어른들의 비판적 시각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학교안·밖에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싹이 있는지 한번쯤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일을 하게 된지 어언 9년을 훨씬 넘겼습니다. 늘 가정과 밖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한 긴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추어 현관에서 아이들을 맞아주지 못한 체 회의나 집회, 각종 강의로 집을 비우기가 일쑤고 저녁시간엔 각종 연대회이나 다음날 행사 준비로 집안 일을 소홀히 하는 등 아이들과 남편으로부터 눈총을 보아가며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퇴근이 늦는 날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부탁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죠. 사사롭지만 서로가 이해하고 나누지 않

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남편상을 세워주기 위해 눈치를 보아가며 밤늦은 시간 다음날 식구 밥 세끼를 준비해야 하니 딸 아이의 말은 그나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의 생활방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기특하다고’ 이야기 해야할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교육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올바른 여성문화의 정착을 제대로 배우고 있을까요. 남성이 누려온 기득권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도전 받고 있는지 배우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상대를 존중하며 사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 문제를 해소하는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성적으로 서열 지워지는 입시라는 괴물로 인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사회로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인격,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존중은 학교의 인권과 권리 존중의 교육에서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기회를 얻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수이기에 평등이니, 인권존중이니 하는 말은 그저 교과서의 까만 글자로만 흔적을 남길 뿐 청소년들의 주의·주장은 철없는 아이들의 항변정도로 흘러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식의 기득권층의 해석과 사고가 과연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권존중의 상식을 갖는 성숙한 인간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모두 반성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인옥**